

“언론 이용 산정호수 비판이 관광객 감소 요인”

市 관계자, 본지 관광객 급감보도 불편한 심기 드러내



29일 계속된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경희 의원이 산정호수 관광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차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지 6월10일자 307호 1면 '산정호수 관광지 입장객 매년 급감' 기사와 관련, 포천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언론을 이용해 산정호수 내부문제를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막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29일 계속된 포천시에 대한 시의회의 문화공보담당관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희 담당관은 박경희 의원(영북면)이 산정호수 관광지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는데 관광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박경희 의원은 "산정호수 투자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없어 의회와 언론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관광법 제55조에서 명시된 연차적 투자계획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담당관은 "법령에 근거해 연차별 투자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산정호수 상인들의 언론플레이는 관광객이 더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산정호수에 대한 계획 없이 즉흥적 발상으로 투자하고 있어 계획에 의해 투자해야 한다"며 "의회, 언론, 상인들이 산정호수에 투자금액은 많은데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연차별 계획이 없다보니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 산정호수내 목교량 설치와 관련된 공무원이 문책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산정호수 확대개발과 관련해 관광지내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확대지정을 하지 않아 군부대 휴양지 부근 수전공이 산립채순

됐다"고 말하고 "산정호수가 살기 위해서는 관광지 인접단 개발하지 말고 주변일대를 관리해야 전체가 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정호수 관광지는 포천신문과 의회에서 지적한 산정호수 농업용수 문제, 주차장 문제, 군부대 관련 탁류시설 등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중장기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담당관은 관광지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직후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포천시만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 시와 주민이 함께 해결해야 하며, 상인과 시민이 지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영북중고 통일교육행사

참전유공자회 30여명 초청

영북종합고등학교(교장 김광수)는 지난 16일 6·25참전 유공자회 30여명 노인들을 초청해 전교생과 함께 통일교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날이 오면', '터', '취파람', '통일이여 오라' 등 노래 부르고와 북한 말로 대화하기, 통일 율동, 북한 음식만들기, 통일 연극, 통일옹변 등 전교생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북한음식시식, 통일을 염원하는 10m 김밥 만들기 등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6·25 참전 유공자회 노인들은 "세월이 지났다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우리들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데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초청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다. 앞으로 학생들은 통일을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큰 역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고마움을 피

부로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6·25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북중고는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되어 2004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인보란 홈페이지 운영 ▶전교사 통일교육원 연수 ▶우두산 전망대 견학 ▶제2땅굴 견학 ▶병영체험학습 ▶통일신문발행 ▶통일기원 꿈나무 명명식 ▶북한 어린이들이 활동 ▶통일퀴즈경연대회 ▶통일소년단발족 운영 ▶통일비디오 감상 ▶탈북자 초청 강연 ▶통일감상문짓기 ▶금강산 현장체험(교사 2명, 학생 9명) ▶남북청소년 교류 편지쓰기대회 ▶통일만화그리기 대회 출품 ▶통일관련현수막 제작 ▶통일지도 제작 ▶통일전시관 설치운영 ▶술이통일체험학습 입소 ▶명상의 시간운영 ▶옹변대회 개최 ▶6·25참전용사 강연 등 통일교육을 실시해왔다.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영북지부장



지난 16일 영북종합고등학교는 6.25참전 유공자회 30명을 초청해 전교생과 함께 통일교육행사를 개최했다.

목회단상

치폐설존(齒閉舌存)

본지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이 전하는 메시지만 '포천선터'에 이어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목회단상'을 연재하고자 한다. 필자는 내촌감리교회 담임목사이며 포천시 참수면 출신인 김창성 목사다. 인생의 교훈과 삶의 지혜가 되는 내용이 연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인간세상은 강자의 논리가 존재하는 세계다. 그래서 약육강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누구나 강자의 자리 다투며 길들여 가고 있다. 진정한 강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라는 명언은 우리에게 교훈이다.

중국의 한 고사에 보면 치폐설존(齒閉舌存)이란 말이 있다. 그 뜻은 인생의 참된 도리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참 스승이라고 소문난 한 분 앞에 모여 교훈을 들으려 했다. 그런데 스승은 말도 없이 매일 사람들 앞에 앉아서 입만 크게 벌리고 하품만 하는 것이다.

그에게 무언인가 들으러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돌아가서는 비난까지 한다.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 오는데 하루는 한 제자가 큰 진리를 깨달았다면서 큰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한편 매우 궁금해 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배웠습니까?"라고 묻자 그가 외친 고사가 '치폐설존(齒閉舌存)'이다. 그 뜻은 "나는 스승의 하품속에서 강한 치아는 결국 없어지고 부드러운 혀는 살아남는 것을 배웠다"라는 깨달음이다.

세상은 강한 것도 멋이 있지만 부드러운 것은 더 아름다운 것임을 일깨워주는 고사가 아닌가? 일찍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문의) 031-532-2489

남양주시에 가까운 말뿐인 포천시 내촌면민의 비애

아저씨 몇 시에 차 출발 하나요~ ~하면 시큰둥하고 수업에 지쳐 피곤한 몸 이끌고 광릉내나 장현에서 차를 기다리다보면 성의 없는 대답과 주로 학생들의 마지막 차 이용하는 진풍경은 가기 싫어 역지로 간다면서 투덜대는 기사 남들이 허다하고 언제나 밝은 모습 보기 어려워 차 타는 것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학생들의 말이 너무 가슴이 아痛나.

어차피 해야하는 일이라면 나의 딸과 아들이라는 마음하 내만 바꾸면 다른사람들 모두 행복 할것인데 이런 맘들을 아시는지요..

차라리 남양주시라면 이러한 편애를 할까요~ ~ 포천시에서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

차편이 하나만 놓지면 40분에서 1시간은 다반사인데 자가용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서민들의 애환을 아시는지요.

선진문수 기사남들의 행동도 물론 피곤하신데 덤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드실거예요 하지만 내촌에서 장현이나 다른 곳으로 다니시는 분들의 애환도 생각해 주시면 안되나요~

부탁합니다~ ~몇년이 지났어도 버스노선이나 시간도 그대로인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 생각좀 하고 삽시다.



김순희 gk2151@hanmail.net

“안전성 문제제기 되면 법정 다툼해야”

이병욱 의원, 전광판 교통사고 위험성 지적

지난해 11월 포천시 및 관광지 등 이미지 제고를 위해 5억여원을 투자해 소흘읍 이동교리 392-6번지 칠성농원 옥상에 설치한 전광판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계속된 포천시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욱 의원은 "전광판이 설치된 위치가 잘못 되었으며 운전자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위험성이 따른 만큼 차량을 정지하고 볼 수 있는 곳 즉, 휴게소 등지로 위치를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희 문화공보담당관은 "포천시를 적극적으로 홍보매체를 찾다보니 이곳에 설치하게 됐다. 또 교통의 직선도로 및 신호등 등 제반사항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 칠성농원 옥상에 설치했다"며 "전광판을 휴게소에 설치하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시 관련 홍보물을 안 본다.

전광판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담당관은 "서울시내에서

전광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전광판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법정다툼을 해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욱 의원은 "서울시내 주행속도는 4~50km이고, 포천시에 설치된 전광판 주변 도로의 주행속도는 80km이며 내년부터는 제한속도가 90km까지 상향 조정 된다"고 말하고 "포천시에 큰 제약이 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정심장학회 2분기 정기회의

시민대중제작후원금 100만원 모금기로

정심장학회(회장 이주석)는 지난 29일 11시 관내 모 식당에서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대중제작후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영재 신임 소흘읍장이 인사차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강수길 회원이 큰 아들인 강용주 회원에게 회원직을 승계해 대를 이어 정심장학회 회원이 되는 날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수동(삼우석재 회장) 회원은 포천신문사에 추진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박수를

보내다며 지속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주석 회장은 포천신문이 정심장학회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심장학회는 소흘읍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애정과 관심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사회단체로 지역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Dong Sung Uni-Tech.Co.

최첨단 시스템으로 모든 제품에 완벽을 추구하는 동·성·유·니·테·크

차별화된 제품생산으로 고객만족을 지향하며 미래를 열어갑니다



<생산품목>

- ◆접착테이프
- ◆수입마스킹
- ◆순간접착제
- ◆스프레이,라카
- ◆우레탄 폼
- ◆양면 테이프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8 / 전 화 : (031) 532-8004 / 팩 스 : 031-532-5792 / 대 표 장 재 수